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79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2월 28일 (음력 1월 24일) 목요일

전남 곳곳서 100년 전 독립만세 함성 올려퍼진다

전남도 22개 시군 전역에서 100년 전 '그날의 함성' 이 다시 울려 퍼진다.

전남도는 오는 3월 1일 출정식을 시작으로 4월 11일까지 42일간 22개 시군에서 3·1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현행사 슬로건은 '우리의 대한독립염원, 의향 전남에서 이루다'이다. 의향 전남의 외침이 전국으로 퍼져 마침내 내 미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이뤄낸다는 의미를 담았다.

전남도, 내일 출정식 이후 4월 11일까지 42일간 진행

'우리의 대한독립염원, 의향 전남에서 이루다' 슬로건



활짝 핀 홍매화

봄 날씨를 보인 27일 오후 대구 중구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봄의 전령사 홍매화가 활짝 피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3월 1일 전남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 보훈단체, 주요기관·단체장,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1 독립만세운동 출정식을 갖고 대한독립만세의 외침을 시작한다.

출정식에서는 김영록 도지사가 독립의 횃불에 불씨를 붙여 군중에게 전달하고 김대중 동상 이외무대까지 만세운동 행진을 펼친다.

행사 마무리 무대에서는 의향 전남의 호국정신을 되새기고, 미래 실천을 다짐하는 '이제 우리는 선인문'을 낭독한다.

목포지역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목포

정명여고에서는 애국가 퍼포먼스를 준비해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전남도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는 3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당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날짜에 맞춰 '대한독립만세' 함성을 이어간다.

특히 3월 23일 목포에서는 독립의 횃불 전국일레이 행사와 연계해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갖고 '독립역사의 길 투어', '3·1만세운동 재현 상황극'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시군 독립만세운동 재현은 4월 11일 함평에서 마무리된다.

박종열 전남도 자치분권과장은 "올해 100주년 되는 해이니 만큼,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의향 전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호국분위기가 널리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목포 임성~보성간 전철화 '청신호'

목포 임성~보성 간 철도 신설과 동시에 전철화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단선으로 건설 중인 목포 임성~보성 간 철도를 전철화로 변경해 주도록 정부에 요청한 결과, 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하기로 하고 28일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한다.

현장조사는 전철화에 필요한 변전소 등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 KID,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올 상반기 중 전철화 반영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민선7기 들어 동일 노선 내 복선전철이 완료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전철·비전철 혼재에 따른 환승 등이 용객 불편 등의 이유를 들어 신설과 동시에 전철화가 추진되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건의해왔다.

총 1조 3795억 원의 사업비로 82.5km를 건설하는 신설 철도는 해남역, 강진역, 장흥역 등 6개 역사를 신축하는 대형 사업이다.

2020년 완공 목표로 7개 공구로 분할해 공사하고 있다.

2019년 1월 말 기준 총공정률은 51.1%다.

이번 전철화사업 동시 추진으로 2022년 말까지 개통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남창규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남해안철도 건설 및 전철화는 국토 서남권과 동남권 연결로 인적·물적 교류를 강화해 지역 개발과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서·남해안 광역경제권 형성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적정성 재검토 현장 조사

총 1조3795억 사업비 82.5km

해남·장흥역 등 6개 역사 신축

2022년 말까지 개통 연기

목포~부산을 연결하는 남해안철도는 총 308.1km로 전 구간 전철화가 이뤄질 경우 무궁화열차 기준 4시간 11분보다 1시간 27분이 단축돼 2시간 44분만에 왕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보성=연구일 기자

3·1절 휴무로 다음 호 5일자 발행합니다



릿수습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의 20대 남성 비하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자 27일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에 발언 당사자인 홍영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곧바로 '사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격을 반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20대 청년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과 화를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금 20대는 구조화된 불평등, 미래의 불확실성에 짓눌려 있다'며 '20대가 직면한 현실에 공감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총 최고위원이 지난 22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20대 지지율 이탈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교육 탓'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홍 수석대변인도 지난 15일 토론회에서 20대의 보수화를 거론하며 이전 정권의 반공 교육이 문제라고 한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 사진=뉴시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매·임대차·매입비축·임대수탁
 - 매매·임대를 통한 영농규모확대 지원
 - 고령은퇴,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임대
 -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 받아 임대
 - 청년창업농, 2030세대, 귀농인 농지지원
 - 청년창업농의 빠른 영농정착을 위해 우선 지원
 - 생애 첫 농지구입자 저리 지원, 5~10년 장기임대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 및 환매 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연금사업**
 -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중도인출 가능)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 영농 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 임대 시 매월 보조금을 지급(75세까지)

독특한 농지관리 전문가 농지은행 | 든든한 노후생활 도우미 농지연금 | 문의 전화 1577-7770